

極 東 地 域

農 村 指 導 事 業 會 議

The Report of the Far East Agricultural
Extension Work Shop

報 告 記

玄 己 順 (서울대 사범대학)

Ki Soon Hyun; *Seoul National Univ.*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나라 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극동지역 농촌 지도 사업 회의는 비올빈, 유규, 일본, 베트남, 태국, 중국, 캄보디아, 한국 등 8개국 대표 56명이 참석하여 극동 지역 농촌 지도 사업 발전을 위한 토의가 있었고, 앞으로 극동 지역 농촌 지도 사업의 추진 방향을 연구 겸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기도 시흥군 자경 부락, 충남 연기군 신안, 같은 부락, 인천 도원 농장, 경기도 시흥원 등을 시찰하고, 한국의 농촌 지도 사업 현황을 돌보게 되므로 더욱 금번 회의의 토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진흥에 많은 조언을 남기었다. 각국의 농촌 지도 사업 현황을 각국 대표가 발표하였고, 각 분야별로 나누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토론하였으며, 또한 현지 시찰을 하는 등 매일 바쁜 일정이었으나, 전원이 시중 일관 열심히 참석하였다.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농촌 발전상을 보여 줄 수 있었고, 또한 개인 접촉

을 통하여 각국의 풍속, 습관, 문화면을 엿볼 수 있었다.

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된 내용을 간략히 보겠다.

6월 11일 오전 9시 30분 조선포텔에서 개최식이 있었다. 농림 차관(김 종대)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회장에는 각국 대표의 농촌 지도 사업 고문관 柳 최고회의 농림위원, 金 내각 사무처장, 崔 외무부 장관, 張 농림부 장관, 柳 재건 국민 운동 본부장, 유송 킬렌처장, 주한 외국 사절, 중앙의료 등 다수 참석하였다. 내각 수반의 환영사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 회의가 우리 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며 우리 국민과 더불어 각국 대표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극동 지역의 제 국가는 하나의 공동 운영체로서, 역사적으로는 찬란한 문화를 오랫동안 함께 누려 왔으며, 또한 오늘날에 와서는 한결 같이 후진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입장을 비판하



극동지역 농촌사업회의 광경(원내는 필자)

기에 앞서 우리는 찬란한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자랑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에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선진 제국과 같은 생활 수준에 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또 동양적인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미덕을 해함이 없이 어떻게 현대 민주 사회를 이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위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적인 공산주의가 언제나 빈곤과 무지 위에 손을 뻗치고, 마침내는 포악한 소수자의 손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까닭에 우리 사회의 빈곤과 무지가 극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 없이 공산주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빈곤과 무지를 구축하고 공산주의 위협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극동 지역 각국이 긴밀한 협력하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공동 과제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협조와 공동 노력은 비단 정치적 분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 진흥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이 크게 발전되고 농민들이 먼저 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혁명이 성취된 지 1년이 경과한 오늘날 자립 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민주화와 농촌 지도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설치된 농촌

진흥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농촌 지도 체계를 일원적으로 확립하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극동 지역의 우리 각국은 공동적인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 개발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과 기술 분야에서도 허다한 공통 과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국제 회의에 참석하신 각국의 농업 기술자 및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큰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가 참가국 사이의 우의와 유대를 굳게 하는 한편, 각국 대표 여러분의 이번 체제가 가장 유쾌하고, 감명깊은 추억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 바입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각국의 종합 사업 보고가 있었고, 한편 농사 개량 및 지도 행정 분과 그리고 농촌 생활 개선 분과 또한 청소년 분과 등으로 일정에 따라 토의 안건 선택 및 검토를 한 것입니다.

6월 15일은 경기도 시흥군 자경 부락을

현지 시찰한 후 진흥청, 농사 시험장 및 임업 시험장을 시찰하였고, 또한 충남 연기군 신안, 갈운의 두 부락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농사, 4H 사업, 생활 개선 사업을 시찰하였습니다.

6월 18일 제 2주에 들어가서는 각 분과 별로 나누어 문제점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중 생활 개선 사업 면만을 간단히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개선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연구와 시험 분야가 필요하며,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얻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농업 사업, 4H 사업, 가정 생활 개선 사업은 항상 상호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 개선 사업에 이바지한 지도원을 실질적인 면으로 훈련시켜야 할 것이며, 그들의 교육 정도를 향상시키고 보수를 인상하여야겠습니다. 자문 위원 (대학교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기술자)을 구성하여 생활 개선면의



경기도 시흥군 자경 부락을 시찰하고 있는 각국 대표들

조언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방의 자원지도자를 발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도하는 데 조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개선 사업 계획은 농촌 부녀자들의 필요한 것을 기초로 할 것이며, 농촌에 있는 여러 기관 또는 사업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생활 개선 사업에 있어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켜 보다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지도 방법, 과제 선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니다. 가정 생활에 관한 여러 학문의 진리를 열결시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부는 누구나 가정 생활에 있어 자기가 배운 것을 실천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소분야 별로 식품과 영양, 건강과 위생, 가정 관리와 계획, 육아, 의생활면으로 나누어 토의하였고, 각국 여자 대표들은 생활 개선을 위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을 말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면에 대하여 각국 상호간의 의견 교환과 협의회 등을 가질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분야 별로 나누어 토론하는 광경

회의 기간중 각국 대표들이 느낀 것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비올닌 수석 대표(판가니 반)

부락 발전을 위하여 농촌 진흥 관계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어 있어 더욱 농촌 개량에 눈부신 진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극동 지역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농촌이 발전하고 있다. 농촌 진흥이 급진적으로 이룩되고 있었으며, 더우기 혁명 정부의 중농 시책과 농촌 지도층의 열의가 보여지고 있었다.

베트남 수석대표(기아오 두 규양)

정부와 농민이 한결같이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굳게 결속되어 있으며, 부락민 상호간에 협동 단합되어 농사 개량, 생활 개량, 4H 사업 등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유규 수석 대표(고자 수이교)

6.25 동란으로 많이 파괴되었던 한국은 완전히 재건된 느낌을 주었으며, 특히 정부와 농민이 협조되어 있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농민은 과학적인 새 농사 기술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 수석 대표(궁 림)

모든 농민들은 농사, 생활면에서 놀랄 만한 발전의 힘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지도 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지도력의 집중과 농민이 협조되어 있는 점 등을 보게 되었다.

중국 수석 대표(루 쥘 수)

한국 사람은 친절하고 열성적이고 또한 근로적이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나 농민이나 공무원이나 모두가 우리를 환영해 주었다. 농촌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보여 주었고, 또한 농민은 열성적으로 맡은 바 일에 충실하였다. 부락민의 협

동 의식이 강하고 주택 개선, 산림 애호, 수로 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그 실정을 볼 수 있었다. 더우기 농촌 주부와 어린이가 대단히 화목한 것을 보아 농가의 평화와 또한 농촌 발전의 요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태국 수석 대표(푸라스트 벤찌트라)

한국이 산악 지대였음을 비행기에서 보고 어떻게 농업이 발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농촌 시찰을 하고 특수한 자연적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머지 않아서 농촌이 발전될 것을 보았고, 특히 토양 보전 사업이 중요히 취급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일본 수석 대표(아카시)

한국은 기후적으로 농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씩씩하게 농업에 대한 여러 면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한국 농촌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농촌 진흥 계획이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고 정부 시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

음을 발전할 수 있었다.

끝으로 회의 기간중 나의 소감을 적어 보겠습니다. 국제 회의를 통하여 각국의 실정을 알 수 있으며 개인 접촉을 통하여 친선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 고전 文化, 藝術, 음식 등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역시 언어가 충분하지 못한 한 대표가 모여서 마음껏 토론을 못한 것입니다. 가정 학회에서든 하루 저녁을 창경원 수정궁에서 티이 파티로 한과를 대접하고 한국 고유의 의상도 소개하였습니다. 장소에 우리는 좀 더 우리 나라 문화도 알고 있어야 하며, 언어 실력도 양성하여 누구든지 국제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 손님에게도 가까와질 수 있는 사교성이 필요하며, 적극성을 띄워서 외국의 실정을 알아 보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매일의 자기 생활에만 쫓들리지 말고, 우리 여성들도 국제 무대에 나가서 씩씩한 모습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